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만족 87%

## 간호사 서비스 만족도, 외래환자가 입원환자 보다 높아

###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발표

의료기관의 '간호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한다고 응답한 환자의 비율이 외래진료에서는 83.9%, 입원진료에서는 77.6%로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한 만족도는 87.3%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제출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전국 6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1만3305명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항목은 총 7개 영역, 113개 문항이다.

△외래진료 이용경험 = 외래진료 중 '간호사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83.9%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예의를 갖추어 대할' 84.5%,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

게 설명함' 83.3%로 집계됐다.

'의사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82.6%였다. '의료기관 이용' 중에서는 진료 전 의료진의 신분 확인이 이뤄진 비율이 88.4%였으며, 10건 중 1건은 사전에 환자 신분

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나 검사를 할 때 신체 노출 등으로 수치감이 들지 않도록 의료진이 배려했다는 응답은 83.3%, 연령·병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주의했다는 응답은 82.8%로 나타났다. 접수·수납 등 원내 행정부서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81.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진료 당일, 접수 후 대기한 시간은 평균 17.4분이었다. 병원(23.1분)이 의원(16.0분)보다 약 7분이 더 길었다. 의사의 실제 진료시간은 평균 12.5분이었

△입원진료 이용경험 = 입원진료 중 '간호사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77.6%로, 외래진료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예의를 갖추어 대할' 79.1%,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76.9%, '긴급 연락(콜)을 했을 경우 바로 응대를 받음' 76.9%로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비율은 10.4%로 집계됐으며, 서비스 만족도는 87.3%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의 만족도 비율(76.5%)보다 10.8%p 높았다.

'의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1.2%로, 외래서비스에 비해 낮았다.

'의료기관 이용' 중에서는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경우가 6.4%,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이 6.2%로 나타났다.

입원 중 본인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경우는 9.2%로, 2017년 조사결과(3.9%)보다 다소 높았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부산시간호사회, 부산시의회와 소통 간담회

### 시의회 복지환경위원 참석 ... 간호현안 논의

부산시간호사회(회장 황순연)는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영)와 소통 간담회를 1월 8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과 위원 7명, 부산시간호사회 황순연 회장과 분야별 간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간호계 현안 문제와 부산지역의 건강관련 이슈들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을 나눴다.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홍보하고,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간호사회의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한

시간도 가졌다.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순연 회장은 "시의회가 간호사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처음으로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정책을 마련해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slee@

## 응급실 폭행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공포된 날부터 적용됐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의료 현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해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시 3년 이상의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위 감경의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응급실 폭행 사건 중 68.5%가 주위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주위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을 위한 법률' 개정인도 통과됐다. 자살예방법등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자살 위험자 구조를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등 전공의 폭행에 대한 수련병원의 조치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수련환경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과거에는 외국인인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본인인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외국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주혜진 기자 hjjo@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문의 전화 1522-1755

## (1면서 계속)

119를 통한 응급환자 상담과 응급처치 안내 서비스를 활성화해 상황이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안내받도록 한다. 지역 내 이송 자원, 병원분포, 교통망 등에 기초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이송지도)'을 구비한다. 119구급대는 환자 중증도 및 이송지침에 따른 적정 병원 이송률을 제고한다.

구급차 이송처치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등 구급차 이용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닥터헬기의 시범적 야간운항 추진 및 정부기관 헬기 공동활용체계를 확립한다.

△응급실 단계 =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기관은 24시간 일차 응급진료 역할에 충실하도록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한다. 특히 과밀화가 심각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경증환자의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안전한 응급실 환경 구축을 위해 폭행행위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보안인력 및 응급실 안내책임자를 둔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격차시설 확보 기준을 마련해 응급실 내 감염확산을 예방한다. 취약지 응급실에 인력·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 마련 등 지역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구

축한다.

△전문진료 단계 = 중증의상의 경우 권역의상센터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의상수련기관 재편 등을 통해 의상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한 국형 의상표준운영체계를 정립해 기관별 성과에 따른 처당지원을 추진한다. 권역의상센터를 중심으로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의상체계를 구축한다.

급성심근경색·뇌졸중의 경우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 정신응급의 경우 복지부·경찰청·소방청 공동의 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응급입원이 활성화되도록 수가 개선을 검토한다. 소아응급의 경우 119 상담서비스를 통해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역응급기관을 활용해 야간·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한다.

△응급의료 기반 = 지방정부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상담-이송-진료 등을 지역 내에서 완결하는 응급환자 대응지침을 마련한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후치료 제공까지 환자 흐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한다. 공공보건정책제도, 공공보건조사제도 등을 통해 취약지 응급의료인력을 확충한다.

## 원광대병원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원광대병원(병원장 윤관하)은 13번째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지난달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에서 실시했다.



원광대병원 양연식

안과 교수를 단장으로 의과대, 치과대, 한의과대, 간호학과 교수와 학생 및 전공의, 간호사, 방사선사, 개입치과과사, 외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해외봉사단 46명이 참여했다.

환자 1965명이 의료 혜택을 받았다. 양연식 교수는 "많은 분들의 후원과 희생 덕분에 꾸준히 해외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slee@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경림 인체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0406398

# 31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 최다 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 기술직 공무원
- 간호직
- 보건직
- 보건진료직
- 의료기술직
- 국가면허시험
- 간호사국가고시
- 위생사
- 보건교사 임용고시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대방열림고시학원  
바로가기 QR코드



NAVER 진통카페  
바로가기 QR코드

# 상담문의 02-823-47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8길 4  
신한헤스티아 2층 (영등포역 5번출구)

# 보건교사 특강

## 2019.1.9 (수) 개강

- 노성신: 기초간호과학, 응급간호, 학교성인질환, 노인간호
- 오정화: 아동간호, 모성간호
- 김희영: 지역사회간호, 학교보건, 정신간호

## 3인의 전공·전문교수진

- 간호직공무원, 간호사국가고시에서 검증완료된 전문교수진
- 최신 경향 집중 분석, 제대로 된 강의준비
- 10년 이상의 현장강의 경력 [현재 진행중]
- 경쟁교재 및 강의의 취약점을 철저히 분석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 수강료



보건교사 스터디 카페  
바로가기 QR코드